교 회 소 식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이단 주의(注意)
- 교회에서 허락되지 않은 성경공부, 기도, 집회참석, 금전거래 금지 강요. 강매. 동업 및 갑과 을의 관계로 연결되어짐 유의
- 표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수 1:2)
- 테바운동 진행을 위해 기도부탁 드립니다 (www.teba.or.kr)

- 다음주일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 5남전도회 특송 : 저녁예배 중
- 정기당회 : 오후 6시 30분 1층 회의실
- 저녁예배 설교 : 김대중 선교사
- 각 부서 여름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름행사 일정**
  - 교사헌신예배 (강사 : 김성규목사) : 7월 6일(주일)
  - 교회 자체강습회 : 7월 8일(화)
  - 유치부 : 7월 18일(금) - 7월 20일(주일)
  - 유년부 : 7월 25일(금) - 7월 27일(주일)
  - 초등부 : 7월 29일(화) - 7월 31일(목)
  - 중.고.대. S.F.C. : 7월 31일(목) - 8월 2일(토)
- 점심식사가 3층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회

- 매일 기도회 : 새벽 5시. 밤 9시 5층 예배실
- 금요 기도회 : (금) 밤 9시 5층 예배실
- 대학부 기도회 : (금) 밤 10시 30분 2층 교육관
- 중, 고등부 S.F.C. 기도회 : (주일) 저녁예배 후 5층 예배실
- 1권사 기도회 : 매주(토) 오전 10시 4층 휴게실
- 2권사 기도회 : 매주(금) 오후 8시 4층 휴게실

- 불우이웃구제 : 최정문 최서용 / 황호태
- 성도점심접대 : 안정훈 안승훈
- 새가족 : 전미경

"바른교회 · 좋은교회"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이 주도했던 종교개혁의 중심사상으로 무장하고서 로마 카톨릭교회의 비성경적인 신앙노선과 타협했던 영국국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시도가 비성경적인 요소들을 청소(Purify) 하자는 것이었기에 사람들은 이들을 '청교도들'(puritans)이라고 불렀습니다. 청교도들은 영국국교회를 개혁하려고 했을 뿐 아니라,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에 미국을 건설하고 영적 대각성운동과 노예해방운동등, 종교, 사회개혁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100여년 전에는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초기 한국교회의 부흥운동과 사회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중심, 성경중심 신학사상은 바로 청교도사상의 핵심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중심, 성경중심 사상을 가지고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기 원하는 청교도의 후예들입니다.

시흥성문교회는 청교도 전통인 장로교회 정치를 따르며,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 신학에 근거한 아래와 같은 신학을 추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Soli Deo Gloria)
오직 은혜 (Sola Gratia)
오직 그리스도 (Solus Christus)
오직 믿음 (Sola Fide)
오직 성경 (Sola Scriptura)

시흥성문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교회에 부여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명(마 9:35)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종교개혁자들, 범위를 더 좁혀서는 청교도들이 실천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길을 가기 원하는 교회입니다.

예 배 시 간

매일 기도회	새벽 5시, 밤 9시	유치 1부	오전 9시
주일 낮 예배	1부 7시 30분	유치 2부	오전 11시 30분
	2부 11시 30분	유년·초등부	오전 9시
주일 저녁 예배	오후 7시	중·고등부	오전 9시 30분
수요 예배	오후 7시	청년·대학부	오후 1시 20분

교회 오시는 길

교회설립 : 1999. 4. 11

2014. 6. 29.

교육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 (마 9:35)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시흥성문교회

RIGHT CHURCH · GOOD CHURCH

담임목사	이근행
파송선교사	김대중 이남재 서경삼 박빌립
장 로	김경섭 정태술
강 도 사	이창훈 송태경 교육전도사 정성호
사 역 자	이계숙 정복희

429-250 경기도 시흥시 하중로 211-1
교회 (031) 317-5883 FAX (031) 318-5883
www.powersm.org E-mail: powersmorg@gmail.com

주일 낮 예배

1부 / 오전 7:30
S.F.C. / 오전 9:30
2부 / 오전 11:30

사 회 : 설 교 자

예배로의부름	----------	다 같 이
찬 송	------ ⓢ 28 (새 28) ①② 50 (새 35) ------	다 같 이
교 독 문	---------- 십계명 ----------	다 같 이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찬 송	---------- 149 (새 159) ----------	다 같 이
기 도	----------	이 창 합	섭 심	학 기	생 도
찬 양	---------- "주만 따라 가리라" ----------	예루살렘찬양대
성 경	ⓢ 1, 2부 열왕기상 9:1-9 (구약 P. 528) 요한복음 21:15-17 (신약 P. 185)	사 회 자
설 교	ⓢ 1.2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	송태경강도사 이 근 행 목 사
봉 헌	--- ⓢ 352 (새 313) ①② 265 (새 516) -----	다 같 이
찬 송	---------- 265 (새 516) ----------	다 같 이
축 도(주기도)	----------	설 교 자

십 계 명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려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삼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 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 오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 육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 칠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 팔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 구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 십은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주일 저녁 예배

오후 7시

사회 : 이근행 목사

예배로의 부름	----------	다 같 이
찬 송	---------- 23 (새 23) ----------	다 같 이
기 도	----------	이 계 숙 권 사
성 경	-------- 시편 47:1-9 (구약 P. 835) -------	사 회 자
설 교	---------- "하나님 찬양" ----------	김대중선교사
찬 송	---------- 82 (새 95) ----------	다 같 이
광 고	----------	사 회 자
축 도	----------	설 교 자

매일기도회

새벽 5시 밤 9시

수요예배

오후 7시

봉사위원(존칭생략)

	안내위원	봉헌위원	저녁 예배	사역자
1부	예배위원	예배위원	다음주일안내	김홍국 정복희 2여
2부	허강수 이명우 8여	임명숙 전정숙 조희정(7월)		
차량	박원규 양선준 이윤우 윤재군 김대형 김창길 윤삼구 이규철 허강수 방성근 문인권 엄명화			

구 분	주 방	2부 예배 기도	주일저녁예배 기도
이 번 주	7 10구역	합심기도	이 계 숙
다 음 주	8 9구역	목회기도	교사헌신예배

차량 시간표

구 분	대우	금호	태평	동아,성원	장곡	대동,청구	능곡
새 벽 예 배	4:46	4:45	4:43	4:50	4:40	4:45	
유,초등부예배	8:40	8:41	8:43	8:40	8:45	8:45	8:40
중,고등부예배	9:10	9:12	9:17	9:10	9:12	9:16	9:10
주일낮2부예배	11:10	11:12	11:15	11:10	11:10	11:15	11:10
주 일 저 녁 예 배	6:40	6:42	6:45	6:45	6:30	6:40	6:40
수 요 저 녁 예 배	6:40	6:42	6:45	6:45	6:30	6:40	

주일 낮 2부 예배 후 1회, 점심 식사 후 1회 차량 운행함

문화전쟁으로서의 동성애 권리운동

동성애자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다른 성적 지향성 때문에 사회에서 차별을 받아 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스스로 한 개인으로서 선택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기본적인 권리를 지니고 있다고 하면서, 이것들이 단지 성적 지향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제한받고 침해당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해 왔다. 선진사회일수록 소수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다른 생각과 견해, 생활방식에 관용하고 경청하는데, 단지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성애를 비정상으로 보고 범죄시 하는 것은 그 사회의 불관용성과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것은 마땅히 바뀌어야 할 비문명적 태도요 문화라고 주장한다.

현재 지구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동성애 문제를 차별금지라든지 소수자 인권 옹호운동으로 이해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일 수 있다. 동성애자와 그 옹호론자들은 치밀한 어젠더(agenda)를 마련하여 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운동은 다음과 같은 목표로 진행된다.

첫째, 동성애자들은 사회적으로 평등한 처우를 받고자 하는 것이다. 동성애자라는 이유 때문에 직장, 학교에서 불이익과 차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문화적 법적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동성애에 대한 도덕적 비판의 행위와 종교적 정죄까지도 불법화하고 법적으로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을 제안하여 입법 권고하면서 차별 금지대상에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그 안에 첨가시켰는데, 만약 이 권고안이 법제화된다고 하면 교육기관의 입학과 편입과정에서 동성애자들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서 안되고, 전학, 자퇴를 강요하거나, 퇴학을 시킬 수도 없게 된다. 교육내용에서 동성애가 비정상이라는 내용으로 가르칠 수 없게 되고, 이를 어기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의사나 상담가가 동성애자를 치료하거나 성 정체성을 교정하는 치유행위는 이성애적 편견에 사로잡힌 비인권적 행위로 또는 동성애를 비정상적인 성애라는 인상을 조장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의사나 상담 치유자들은 심각한 내적 압박을 받게 되고 동성애를 죄로 여기는 기독교인들 역시도 동성애가 비정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에 몸을 사릴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은 얼핏 성 소수자의 인권과 평등권과 선택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한 운동인 듯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운동은 보편적 도덕 가치 및 기독교적 도덕에 대한 반기독교적 문화의 충돌이며 전쟁이다. 이런 성격을 지닌 동성애 관련 사회적 현상을 안이하게 대하거나 방관하는 것은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결국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기독교회는 헌신된 관련된 전문인들과 함께 좀 더 조직적으로 이 현상을 분석하고 치밀하게 대응 전략을 세워가야만 한다.

교회는 무엇보다 동성애는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결과로 말미암은 역리적 삶의 모습과 현상임을 타협하지 말고 가르치고 선언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는 동성애로 고통받는 자들을 외면하거나 배척해서는 안된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의 대상이다. 이들도 다른 면에서는 이성애자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다. 교회는 이들에게 다가가고 또 따뜻하게 맞이하고 환대해서 교회로 나오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들이 신자들과 교제를 통해 자신의 욕구와 성향이 비정상적인 것을 알고 그것을 교정하고 치유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도록, 교회는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만약 치료가 불가능하고 교정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성향을 실행에 옮기지 않도록 권고하고 이들의 성적 욕망과 에너지를 다른 생산적인 일들에 돌리며 살아가도록 돌봐주어야 한다.

- 고신대학원 신원하 교수 -